

‘김정은의 남자’ 2인자 자리 굳힐까?

김정은, 조용원 상무위원 전격 발탁



이명중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요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남자가 있다. 늘 그의 곁을 지키며 알 듯 말 듯 한 미소를 짓곤 하던 조용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지난 1월 열린 노동당 8차 대회(1월 5~12일)에서 그는 북한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전격 발탁됐다. 김정은 위원장과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와 함께 권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5인방에 진입한 것이다. 정치국 후보위원이던 조용원이 정위원도 거치지 않고 수직으로 상승해 권력의 정점에 자리한 것은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당 대회 직후인 1월 14일 열린 북한군 열병식에서 드러난 조용원의 드레스코드는 그가 김정은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당분간 승승장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일성광장 열병식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검은색 가죽 롱코트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조용원도 김 위원장과 거의 같은 스타일의 코트를 입고 자리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송월 부부장도 마찬가지였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3인방이 유사한 패션을 보여줬는데, 이는 김 위원장의 재가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가죽 코트 차림을 통해 이들 세 사람이 김 위원장의 곁을 지키는 핵심임을 과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용원의 발탁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을 맞는 해에 조용원을 권력의 핵심 포스트에 기용했다는 점이다. 2011년 12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최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절)인 2월 16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함께 했다. 연합뉴스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김 위원장으로서의 집권 10년 차인 올해 통치 리더십을 보여줄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특히 경제와 민생 문제가 핵심이다. 당 대회와 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경제부처와 관료들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둘째는 김 위원장이 오랫동안 자신의 최측근 보좌관이자 권력의 핵심 플레이어로 삼아온 여동생 김여정의 ‘강등’과 조용원 기용이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김여정은 8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내줬다. 물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든든한 후광을 업고 있는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에 이상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죽 코트 차림의 공식 등장은 이를 엿보게 한다. 하지만 노동당 내 직위가 흔들렸다는 건 이상 징후인 것만은 틀림없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사태나 꼬인 대남 문제, 지나치게 김여정이 부각됨으로써 김 위원장 유일지도체제의 동력이 약화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한 대체 및 보완재가 조용원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조용원이 오랜 기간 노동당 조직지도 사업을 해오면서 북한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이란 점이다. 특히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군부대나 공장·협동농장 등 이른바 현지도도 때 수행을 도맡아 하면서 최고지도자의 통치철학과 북한 체제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지를 꿰뚫고 있는 인물이 조용원이다. 그의 발탁이 군부나 노동당·내각의 여느 고위간부 기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가. 이 시점에서 그를 내세운 김 위원장의 인사 포석이 무엇일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조용원은 이름 그대로 ‘조용한 남자’였다. 김 위원장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공개활동 수행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는 그림자 역할을 도맡았지만 나서는 법이 없었다. 관영 매체의 영상을 보면 늘 카메라 앵글의 반대편 쪽으로 몇 걸음 떨어진 채 김 위원장과 핵심 간부의 모습을 지켜보며 살짝 미소만 짓고 있는 모습이였다. 어쩌다 얼굴이 등장한다 해도 김 위원장의 지시를 수첩에 받아 적는 장면이 대부분이었다. 김 위원장 옆에 한 걸음이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조용원 당 비서 쪽으로 몸을 틀고 무언가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더 다가가 말을 걸거나 눈 맞춤 하려는 다른 간부들과 차이가 났다.

탈북 인사의 증언과 정부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 보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1995년 조용원은 강원도당 조직부의 지도원으로 노동당 생활에 첫발을 내디뎠다. 눈길을 끄는 건 그의 전공이 물리학이란 점이다. 조용원뿐 아니라 당시 같은 과의 졸업생 7~8명이 노동당 중앙과 지방 조직의 조직지도부 사업에 배치됐다. 물리학 분야의 인재들이 노동당 조직사업 등에 배정된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이 1980년대 초 ‘앞으로 당 간부는 이공계 출신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거 당 축성 시기(권력기반을 다지던 기간)에는 노동자·농민의 혁명성으로 투쟁했지만, 이제는 조직 일꾼들 사이에 자연과학으로 준비된 간부가 많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5~7년 정도 강원도당에서 일한 조용원은 평양의 중앙당 조직부 종합과 지도원으로 발탁돼 조직지도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노동당의 조직지도부는 간부의 인사와 처벌, 조직에 대한 검열, 김 위원장 특명사항 처리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당 내의 당’이라고 불린다. 당 국가 체제인 북한에서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이란 얘기가. 책임지도원과 부과장, 과장직을 차례로 거치며 잔뼈가 굵은 조용원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이 제강(2010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의 말년에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시찰 담당 부

부장으로 수행하는 일을 전담했다.

조용원의 출신 성분이나 성장 배경 등은 베일에 싸여 있다. 우리 정보 당국도 조용원의 장인이 군 전차교도지도국장을 지낸 원명균 상장(북한군 계급상 별 셋으로 우리의 중장에 해당)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외에 특이 첩보를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조용원의 부모나 가족이 고위급 인사나 이름난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라 얘기다. 평범한 집안 배경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원의 가장 큰 장점은 '오버하지 않는' 처세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다. 김 위원장에게 밀착 보고 시에는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추는 등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다른 간부와 차별화된 '수령에게만 충실히 하는 충성스러운 간부'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10년 가까운 김 위원장 집권 기간에 단 한 번의 부침 없이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에서 자리를 유지했다.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거머쥐으로써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됐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이인자라까지 불리며 당분간 권력의 최고 정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권력에는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이 따른다. 특히 북한 권력에서 이인자로 부상하는 건 마치 단두대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어쩌면 북한 권력 내부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인자'라는 표현이란 얘기다. '권력서열 2위'로 불

리거나 간주되는 순간 정치적 명운을 다할 수밖에 없다. 십중팔구 그 위세는 물론 생명까지 잃고, 가족·친지와 추종 세력까지 철저하게 몰락한다. 그만큼 위험천만이란 말이다.

이는 김 위원장 정권 들어서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김 위원장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권력을 누리던 고모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하루아침에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게 대표적이다. 혈족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은은 '포스트 김정은' 체제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4년 전 45살 나이에 독살당했다. 중국이 유사시 김 위원장의 대안으로 김정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과 서방 언론의 보도를 김 위원장이 그냥 넘기기 어려웠을 공산이 크다.

장성택을 비롯해 숙청되거나 처형된 고위 간부들과 달리 남다른 처세와 노하우로 무탈하게 권력 내에서 생존해온 경우도 적지 않다. 책벌과 숙청 수준의 파고를 겪으면서도 오독이처럼 다시 일어나 탄탄한 지위를 누리는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 체제 출범 직후인 2012년 4월 당 4차 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그는 9년 동안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 2019년 4월에는 김영남의 뒤를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물론 최용해는 남다른 출신 성분과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항일 빨치산으로 찬양되는 최

현(1982년 사망) 전 인민무력부장이 그의 아버지란 측면에서다. 사실 북한이 주장하는 항일투쟁 시기 최현은 김일성보다 직급이 높았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할 때 즈음해서 최현을 중심으로 김일성과 다른 간부가 나란히 찍은 사진은 사라졌고, 김일성과 최현의 자리를 바꿔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최현도 김일성에게 각듯하게 대했고, 북한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최현을 '진짜배기 충신'으로 치켜세우며 빨치산 2~3세대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데 활용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용해는 비교적 승승장구해왔다.

김 위원장 후계 추대를 결정한 2010년 9월 노동당 3차 대표자회 직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린 아들(당시 26세)에게 대장 군사칭호를 부여하며 장성택 김경희 등 후견인 역할을 할 5명도 대장으로 임명했다.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온전한 건 최용해가 유일하다.

최용해가 건재할 수 있는 배경을 '권력의 아웃사이드'란 측면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대 정치경제학부를 나온 최용해는 1980년대 사로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국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을 거치며 청년 조직의 간판으로 자리를 굳혔다. 비리 혐의로 해임된 그는 평양시 상하수도관리소 당비서로 좌천됐다가 2006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로 밀려난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군 총정치국장 등 요직을 맡았지만 한계가 있었다. 고위 탈북인사는 "오랜 청년조직 생활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다른 파벌에 위협이 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조직 파워는 별로지만 300명의 식구에 '국가수반' 대우를 받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최용해가 찾은 마지막 자리일 수 있다.

2021년 김정은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듯하다. 출발부터 평양 권력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새해 벽두 당 8차 대회를 개최해 5개년 경제계획을 제시하고 인민생활과 '먹는 문제의 해결' 등 기치를 내걸었지만,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당 대회 한 달 만에 전원회의를 소집해 "달라진 게 없다"며 질책한 건 이를 잘 보여준다.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비서로 선출된 조용원(하얀 원)이 당 대회 주석단에서 김정은 총비서 바로 오른쪽(김정은 기준)에 자리하고 서 있다. 권력 서열 3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계획을 낮게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초과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려 하지 말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제계획 추진의 사령탑으로 임명했던 김두일 당 경제비서 겸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전격 해임하고 후임에 경제 부총리 출신 오수용을 투입했다.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연일 간부들의 반성과 자아비판 목소리가 이어진다. 내각 총리 양승호는 2월 13일 자 노동신문에 "우리 경제 지도일꾼들이 보신주의·패배주의적 관점을 송두리째 뿌리 빼지 못하고 아직도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 포로가 돼 있다"고 자성했다.

2월 24일 자 노동신문 사설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애로가 제기된다고 국경 밖을 넘보거나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수해·태풍 등 자연재해로 지난해부터 몸살을 앓았다. 1년을 넘어선 북·중 접경지역 차단 등 선프제재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하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어수선하고 엄중한 시기 북한 권력의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조용원으로서도 여러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전원회의에서는 조용원 조직 비서가 이례적으로 당 간부를 일으켜 세워 질책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유달리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으며 김 위원장의 최측근임을 과시했지만, 조용원의 앞날을 점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에서 '이인자'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월 8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비서 좌우로 주석단에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맨 왼쪽부터 차례대로)가 앉아있다. 연합뉴스



북한 조용원 당 비서가 2월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주요 경제지표가 한심하게 설정됐으며 간부들의 보신주의를 비판했다. 연합뉴스